

이통사 주파수 경매 시작... 전략 경쟁 치열

5개 대역 140MHz 황금 주파수가 매물로 나와

통신경쟁력과 신사업 위해 이통3사 확보 필수

29일 이통통신용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면서 통신3사의 치열한 전략 경쟁이 시작됐다. 주파수 경매는 이날 오전 9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TA)에서 시작돼 다음달 승자를 가릴 때까지 진행된다. 올해 주파수 경매에서는 5개 대역 140MHz 주파수가 매물로 나왔다. 50회 동시 오텐입찰 경매로 승부가 안나면 밀봉 입찰로 최종 낙찰자를 가리는 형식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은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도 피 팔리는 주파수 접점을 펼친 전력이 있다.

2011년은 3G보다 훨씬 빠르고 품질이 좋은 LTE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다. 스마트폰 열풍도 LTE 상용화를 앞당겼다.

당시 국제 로밍 주파수 대역 권고안에 따라 1.8GHz 대역이 황금주파수로 떠올랐다. LTE 시대 강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주파수 대역이었다.

경매 대상 주파수 대역은 ▲800MHz대역(10MHz 폭) ▲1.8GHz대역(20MHz 폭) ▲2.1GHz대역(20MHz 폭)이었다. 경매 방식은 국내 최초로 동시 오텐입찰 방식이 채택됐다.

2011년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경매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총 83라운드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경매 결과 KT는 800MHz 대역 10MHz 폭을 2610억원, SK텔레콤은 1.8GHz 대역 20MHz 폭

을 9950억원, LG유플러스는 2.1GHz 대역 20MHz 폭을 4455억원에 가져갔다. 총 1조7015억원 규모였다.

2.1GHz 대역 20MHz 폭은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를 위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LG유플러스는 "업계 3위로서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LG유플러스의 생각이 반영돼 2.1GHz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차지했다.

SK텔레콤과 KT는 1.8GHz 대역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1.8GHz 대역 마지막 입찰에서 KT가 800MHz를 택하기로 전략을 바꾸면서 SK텔레콤이 1.8GHz 대역을 가져가게 됐다. SK텔레콤은 무려 9950억원을 주파수 대가로 부담해야 했다.

2013년 주파수 경매에서는 판이 더욱 커졌다. 일본폰(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비율이 올라가고 LTE 상용화 이후 데이터 이용이 폭증하면서 주파수 부족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광대역 LTE 시장 선점을 위한 주파수 확보 경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경매 방식은 동시 오텐입찰(50라운드 제한)과 밴드플랜 경쟁 방식이 혼용됐다. 밴드플랜 경쟁은 D블록(1.8GHz 대역 15MHz 폭)이 경매에서 빠지는 '밴드플랜'과 경매에 포함된 '밴드플랜'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밴드플랜 1 : 2.6GHz(40MHz·A1블록), 2.6GHz(40MHz·B1), 1.8GHz(35MHz·C1) ▲밴드플랜 2 : 2.6GHz(40MHz·A2), 2.6GHz(40MHz·B2), 1.8GHz(35MHz·C2), 1.8GHz(15MHz·D)이다.

이는 KT 인접 대역인 D블록이 황금 주파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경매로 입찰가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특별한 낙찰자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밴드플랜 1 입찰가의 총합이 밴드플랜 2보다 높으면 최종경매 대상은 밴드플랜 1로 결정, D블록은 경매에서 자동 제외된다. 다만 1.8GHz를 사용하던 SK텔레콤과 KT는 C블록 입찰이 제한됐다. C블록 낙

찰을 받으면 기존 사용 대역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2013년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린 경매에서 2.6GHz(B2블록)는 LG유플러스가 4788억원에 가져갔다. SK텔레콤은 1.8GHz(C2블록)를 1조5000억원, KT는 1.8GHz(D블록)를 9001억원에 획득했다. 최종 낙찰가는 2조 4289억원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황금주파수인 D블록을 낙찰받는 것을 막기 위해 밴드플랜에 집중했었다. 하지만 밴드플랜 1 블록의 입찰가격이 치솟으면서 두 회사는 결국 밴드플랜 2로 전략을 바꿨다.

/인진수기자



엔비디아, 'VR 익스피리언스 데이' 개최

엔비디아는 최신 VR(가상현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엔비디아 VR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지난 29일 오전 서울 삼성동 웨비프빌딩 VR 데이 체험관에서 홍보하는 포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최신 VR(가상현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엔비디아 VR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지난 29일 오전 서울 삼성동 웨비프빌딩 VR 데이 체험관에서 홍보하는 포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진수기자

美 주요 언론 "스마트폰 10년 전성기 쇠퇴"

지난 10여년동안 이어졌던 스마트폰 전성기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파이낸셜타임스 텔레그래프, 와이어드 등은 28일(현지시간) 일제히 스마트폰 시장의 하락을 지적했다. WSJ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갤럭시S7 스마트폰과 같은 고가(高價) 프리미엄 제품군의 판매 호조로 6조58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기는 했지만, 애플이 13년 내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하고 LG 전자가 3분기 연속 모바일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선진국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가 인도,인도네시아,라틴아메리카 등 개도국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상대적으로 약체인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어졌고, 남아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WSJ은 분석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둔화는 부품제조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등을 생산하는 소니 디바이스 부문은 28일 1분기 영업이익이 286억 엔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는 890억 엔 흑자였다.

WSJ은 삼성전자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나 증가해 2013년 2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마진 폭도 11%에서 14%로 늘어났지만,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해온 스마트폰 시장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애플리스트들이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서울지사 책임자인 셸리 장은 WSJ에 "삼성전자가 실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을 쫓아갈 것"으로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28일 스마트폰이 시장에 선보인 후 판매가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갖게 되면서 지난 10여년동안 엄청나게 성장해온 스마트폰 시장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애플리스트들이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진수기자

한은 "내년성장률 올 전망 2% 후반보다 높아질 것"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기로 밝혀

한국은행은 지난 29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 전망되는 2% 후반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국내경제는 경기회복세가 미약해 성장률이 2%대 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신중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전망한 바 있다. 성장경로의 상향가능성으로는 세계경

제 성장세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신중시장을 경기 개선 등이 꼽혔고, 중국 및 자원수출국의 성장세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은 하방리스크로 지목됐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만큼 향후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내외 경제여건을 볼 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 회복, 금융안정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제공하는데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 금리인상, 중국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국제유가 변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통화금융대책반을 즉각 가동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6월 기준 금리를 각 0.25%p 인하한 뒤 현재까지 연 1.50%의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수출과 설비투자, 창업촉진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9조 원 확대 지원했다. 회사채 시장의 불안 요인을 낮추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500억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인진수 기자

美 아마존 4분기 연속 순익 달성

미국의 온라인쇼핑몰 아마존이 지난 28일(현지시간) 기대이상의 분기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이 4분기 연속 순익 달성을 발표하면서, 아마존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2% 넘게 폭등하고 있다.

CNN 머니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5억1300만달러(약 5841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의 배 이상 좋은 성적이다. 전년 동기에는 57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주당 순이익은 1.07달러다. 이 역시 시장의 예상치인 88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8% 증가한 29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아마존 웹서비스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63% 증가한 약28억 달러로 집계됐다.

/인진수 기자

한은 "한국형 양적완화, 국민합의 있어야"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으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한국형 양적완화'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내세우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연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이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적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부총재보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한국형 양적완화를 제시한 데 이어 청와대가 지 나서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힘을 실어줬지만 한은은 그동안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어떤 역할을 할 지 논의해 보겠다"고만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정부의 재정지원보다 우선 활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급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